대행 선사 “생각 내면 법신” 의미는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 성료

오진영, 대행 선사 법신관 조명
‘主人空’이란 법신 현실서 작동
“수행 궁극 지향점 일상서 구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12월 1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대행선연구원의 전문 연구원 2인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대행 선사의 사상에 천착한 결과물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유식의 삼신불 사상과 대행 선사의 법신 사상’을 주제로 발표한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유식학의 삼신불 사상과 대행 선사 특유의 법신관을 비교·고찰했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유식학은 팔식의 단계적 정화 과정에서 지혜가 순차적으로 획득되고 구경위에서 삼신(화신·보신·법신)이 동시에 구족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현대불교의 현실적인 수행론을 설파했던 대행 선사는 이를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공(空)’적 기반 위에서 깨친 자의 관점으로 근본적으로 재해석해 삼신은 이미 지금 구족된 상태로 현현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데 주목했다.

특히 대행 선사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 생각을 내면 법신, 움직이면 화신’이라는 명제로 삼신의 동시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성불한 부처의 관점에서 구경위에 도달한 부처의 삼신이 한 찰나에 동시적으로 작동함을 보인 것”이라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오 연구원은 “유식학이 ‘어떻게 법신에 도달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대행 선사는 ‘법신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며 “대행 선사는 깨친 자의 관점에서 일상의 매 순간이 이미 삼신의 완전한 현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12월 1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자와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현재적 법신관은 “수행의 궁극적 지향점을 일상 속에서 구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행 선사의 법신관이 단순한 개인적 통찰이 아니라 불교 사상사의 여러 전통을 통합한 결과”라며 “이는 ‘주인공’이라는 대행 선사의 독창적 개념으로 통합돼 현대적으로 재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각을 내면 법신’이라는 명제는 전통적인 법신 이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지금 우리의 행동 모두가 법신의 현현으로 재해석한 통찰”이라며 “생각 그 자체가 법신의 작용이라는 통찰은 일상의 모든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며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해체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불전(佛傳) 수용과 법수(法數)’를 통해 대행 선사가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을 수용하는 양상을 살폈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㉓ 화안애어(和顔愛語)

다정한 얼굴이 세상의 답이다

和 顔 愛 語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불자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문수보살의 이 게송은 음미할수록 고요하고 깊은 울림을 전한다. 마음 씀은 얼굴과 언행으로 드러난다. 내면이 평화롭지 못하고 이런저런 속셈이 가득하면 얼굴빛과 말투가 맑을 수 없다. 불만이 잦고 분노가 감정을 지배하면 일상의 언행은 자연히 거칠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이의 얼굴에서 경직되거나 거만한 기운이 느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기 어렵다.

얼굴과 언행은 곧 자신을 가꾸는 수행이며,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을 건네는 보살행이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을 ‘환하게 미소 짓는 분’으로 묘사한 구절이 자주 보인다. 삼매에 잠긴 고요한 얼굴, 제자들을 대할 때의 친절하고 자상한 얼굴, 고통 속의 중생을 향한 연민의 얼굴이 그것이다.

〈증일아함〉에는 ‘무재칠시’가 설해진다. 이는 재물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이다. 그중에는 이웃을 대할 때 부드럽고 자애로운 눈길을 건네는 안시(眼施),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을 내미는 화안시(和顔施), 진실하고 위로가 되는 말로 힘을 북돋우는 언시(言施)가 있다. 보살의 실천 덕목인 사섭법에는 애어(愛語)가 있고, 팔정도에는 정어(正語)가 있다.

〈대지도론〉 또한 분별과 집착을 떠난 반야공성(般若空性)에 바탕하여, 재물에 기대지 않는 보시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용모와 언행의 수양이 주로 도덕과 윤리에 초점을 둔다면, 불교는 내면의 수행과 자비의 보살행을 동시에 실천하는 관점을 지닌다. 이는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평화가 되라”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내가 화안과 애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평화로운 기운은 자연스레 이웃에게 스며든다.

화안애어의 반대편에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있다. 공자는 교묘한 말과 꾸며 낸 얼굴을 경계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안애어는 연기적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내가 친구를 바라보는 동시에, 친구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결국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평화는 우리 내면에 있어요”

평화 위한 3700km 도보순례
10월 26일부터 20여 명 스님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약 20여 명의 스님들이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워싱턴 D.C.까지 3700km를 걷는 도보순례 ‘평화를 위한 행진(Walk for Peace)’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은 지난 12월 10일 미시시피주의 주도인 잭슨시를 통과하며 평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스님들의 순례와 집회의 모습을 ‘미시시피 프리 프레스’, ‘슈퍼톡 미시시피’ 등 현지언론들이 특별보도했다.

지난 10월 26일 미국과 전 세계에 평화, 자비, 연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보순례를 시작한 스님들은 베트남계 테라와다 불교사찰인 후옹다오 위빠사나 바바나 센터의 스님들이다. 스님들은 이 순례를 ‘평화를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였으며 미시시피주는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전 거쳐 가는 10개 주 중 하나다.

미시시피 주 의사당 앞에서 스님들을 기다린 공무원, 주민,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은 스님들은 세계 평화와 자비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순례를 이끄는 판나카라 스님은 짧은 법문을 통해 평화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순례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건넸다. 이어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덧붙여 대중의 박수를 받았다.

집회 후 많은 시민들이 잭슨시를 통과하는 약 4km의 구간을 스님들과 함께 걸었다. 일일 도보순례에 참가한 지역사회운동가 매들린 코츠는 “걷는 동안과 후에 모든 시간이 나에겐 마음챙김 연습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정치상황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빈곤 같은 문제가 매년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곳 잭슨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런 평화와 자비, 연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말 기쁘다. 순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은 “미시시피주 의사당에서 열린 평화집회는 성공적”이라면서 “평화를 위해 함께 걷고 연대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집회는 물론 함께 일일 순례를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순례단의 잭슨 방문은 미시시피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지 208주년이 되는 날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잭슨시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우리 주의 역사와 그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다양한 공동체를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다.

순례단은 이날 시 외곽의 공원에서 좌선을 하며 하룻밤을 보낸 후 워싱턴 D.C.를 향한 순례를 이어 나갔다. 순례단은 2026년 2월 13일경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시시피주 의사당 앞에서 평화집회를 가진 순례단과 연대 시민들.
사진 출처=슈퍼톡 미시시피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신국판/384쪽/값 24,000원

법화경은 ‘수행’의 경전이다!
법화경 수행 연구
『법화경』을 ‘신앙의 경전’에서 ‘수행의 경전’으로 재해석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연결되는 수행의 지도와 흐름을 보여준다.
현수 저/신국판/양장/444쪽/값 28,000원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룔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룔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